

한국 대학생의 신체이미지: 일본, 중국과의 비교를 토대로

김 완 석*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유 연 재

광운대학교 경영학부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일본 남녀 대학생들의 신체가치관과 신체이미지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n=347), 중국(n=341), 일본(n=271)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에 대한 가치관인 신체조작성, 신체편향성, 신체평가소재, 외모도구성과 객체화 신체의식 그리고 신체존중감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신체가치관과 객체화 신체의식, 외모존중감에서 국가간 차이가 있었다. 한국대학생들은 신체에 대한 자의적 조작에 가장 허용적이며, 건강보다는 외모를 중요한 것으로 믿으며, 자신의 신체를 타인의 관점에서 평가하며, 외모가 이성관계나 사회적 성취에서 도구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믿는 정도가 일본이나 중국대학생에 비해 높아서 삼국 중 가장 덜 보수적인 신체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 외모존중감은 중국대학생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일본대학생에 비해 높았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 감시성과 수치심은 일본대학생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중국대학생에 비해서는 높았다. 성별 차이에 관해, 여대생은 남대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에 비해 외모를 더 중요한 것으로 믿고 있으며, 외모존중감이 더 낮으며, 감시성이나 수치심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신체가치관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외모존중감이나 객체화신체의식은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볼 때, 한국여대생은 신체가치관은 가장 덜 보수적이었으며, 외모존중감과 객체화 신체이식은 중국여대생과 일본여대생의 중간수준이었다. 일본여대생은 특히 외모존중감이 가장 낮고 신체에 대한 감시성과 수치심이 가장 높아서 가장 부정적인 신체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여대생은 가장 보수적인 신체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외모존중감이 한국과 일본여대생에 비해 높고 감시성이나 수치심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일본표본에서 신체가치관은 객체화 신체이식의 매개과정을 통해 외모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표본에서는 신체가치관이 외모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신체이미지, 신체가치, 신체존중감, 객체화 신체이식, 국가비교

* 이 연구는 2008년도 LG연암문화재단의 교수해외연구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 김완석,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E-mail : wsgim@ajou.ac.kr

젊은이들의 부정적인 신체이미지는 성형이나 섭식장애, 운동중독과 다이어트, 성적인 학대나 기능장애, 인간관계의 문제와 외모지향적 소비행태 등 부적응적이거나 병리적인 현상의 원인으로 간주되어 여러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¹⁾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연구들은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이나 평가가 만연해 있으며, 그 결과 섭식장애, 신체이미지 장애, 과도한 운동이나 다이어트, 성형수술, 성적인 학대나 기능장애, 인간관계의 문제 등 부정적인 영향을 낳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김영신, 양난미, 2010; 손은정, 2011; Garner, 2002; Stice, 2002; Harrison, 2000; Jaeger, Ruggiero, Edlund, Gomez-Perretta, Lang, Mohammadkhani, Sahleen- Veasey, Schomer, & Lamprecht, 2002; Kleck & Strenta, 1980; Nemeroff, Stein, Deihl, & Smilack, 1994; Nezelek, 1999; Wiederman, 2002 등).

이 같은 부정적인 신체이미지와 그로 인한 문제들은 동아시아 삼국에서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20여년 전부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장경제체제가 폭발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중국에서도 점차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연구들은 이러한 부정적 영향의 원인으로 주로 신체외모를 상품화하고 인간의 몸을 도구화 또는 객체화하는 상업주의적 대량매체들이 전달하는 광고나 드라마와 같은 메시지를 지목하고 있는데(McKinley & Hyde, 1996;

Fredrickson & Roberts, 1997), 이는 이미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체는 일종의 문화자본이며 따라서 신체 특성의 차이는 그 자체가 사회경제적 가치의 차이를 낳는다는 일부 사회학자들의 견해(Bourdieu, 1973; Shilling, 2000)와도 관점을 같이 하는 것이다.

신체이미지의 문화차이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은 미국 내의 인종 차이에 따른 연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백인여성들과 흑인, 남미계, 아시아계 여성의 신체이미지의 차이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Brown, Cash, & Lewis, 1989). 하지만, 각 문화권 내에서도 국가, 하위인종, 그리고 하위문화에 따라 신체이미지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Celio, Zabinski, & Wilefey, 2002; Gluck & Geliebter, 2002; Hall, 1995; Jackson & McGill, 1996; Mintz & Kashubeck, 1999; Mukai, Kambara, & Sasaki, 1998).

동아시아 삼국은 많은 비교문화 연구들에서 비슷한 특성을 가진 하나의 문화권으로 간주되었다(예컨대, Markus & Kitayama, 1991). 실제로 동아시아 삼국은 19세기 서구와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하기 이전에는 매우 오랫동안 거의 하나의 문화권으로 존재하였다. 유교와 불교는 삼국 모두에서 정치와 문화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고, 한자는 삼국 모두에서 중요한 문자체계였다. 또한 삼국 모두 왕조중심의 정치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조공무역의 형태로 경제적인 교류도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하지만, 서구와의 교류라는 근현대사의 경험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일본은 한국보다 한 세기 이상 앞서서 서구의 문화에 노출되었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정치경제체제를 경험한 역사도 그 만큼 길다. 중국은 지금도 서구의 민주주의와는 다른 독특한 정치체제를

1) 이 글에서 ‘신체이미지’란 자신의 신체의 크기나 형태, 기능에 대한 지각과 평가, 감정 등을 모두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이 분야의 연구를 주도해온 Cash(2004)의 관점을 따른 것이다.

가지고 있으면서 경제적으로는 최근에서야 서구식의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연구자들은 신체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을 시장경제 체제와 이런 체제 하의 상업적 대중매체로 보고있다. 이런 점에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경험한 역사가 다른 동아시아 삼국 젊은 이들의 신체이미지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김완석과 김정식(2007)은 이런 추론을 바탕으로 삼국여대생들의 신체이미지 차이를 연구하여, 이들의 신체가치관과 신체존중감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김완석, 박은아와 Takemoto(2009)는 삼국의 여대생들의 객체화 신체의식에 차이가 있으며 이것이 자기해석(self-construal)이라는 문화적 변수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삼국 여대생의 신체가치관과 신체이미지의 차이를 보여준 김완석과 김정식(2007)과 요가인과 여대생 표본을 대상으로 신체가치관이 객체화 신체의를 통해 외모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한 김완석과 조옥경(2007)의 연구를 확장 통합한 것이다.

즉, 표본을 한중일 삼국의 여대생 뿐 아니라 남대생까지로 확대하여 신체가치관과 신체존중감의 국가별 성별 차이를 확인하고자 했고, 둘째, 신체가치관이 객체화 신체의를 통해 신체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의 국가별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했다.

연구문제

신체가치관과 신체존중감

그동안 신체이미지 관련 연구들은 자본주의 상업매체들의 영향으로 부정적인 신체이미지가 형성된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신체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을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Heinberg, Thompson & Stormer, 1995), 객체화 신체 의식(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Fredrickson & Roberts, 1997) 등의 개념을 제안하였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들도 개발되었다. 하지만 이런 개념들은 상업주의 매체들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나 자신의 신체를 제 3자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태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더 근본적인 가치관을 무시하고 있다. 예컨대, 신체나 외모의 의미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들은 지금도 학교나 종교기관을 통해 전파되고 있으며, 이런 가치들은 상업주의 매체들이 전달하는 메시지의 영향력을 조절할 수 있다.

김완석과 동료들은 신체의 의미에 대한 더 근본적인 스키마의 하나로서 신체가치관이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그 측정도구를 개발한 바 있다(김완석, 김철민, 2002; 김완석, 유연재, 2007; 김완석, 권지현, 유연재, 2010). 김완석과 김철민(2002)은 신체가치관을 “신체의 개인적 사회적 의미에 대한 주관적 지각으로서, 학습 가능한 일련의 신념들”로 정의하고, 신체가치관을 나타내는 신념들로 신체조작성, 신체편향성, 신체도구성, 신체평가소재 등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들 신체가치관들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한 바 있다(김완석, 유연재, 2007; 김완석, 권지현, 유연재, 2010). 신체가치관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지각이나 평가와 같은 신체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

라 부정적인 신체이미지의 원인이 되는 자기 신체의 객체화에도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 다양한 부정적인 신체관련 행동을 야기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김완석, 조옥경, 2007).

신체존중감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느낌’을 뜻한다. 신체존중감은 자기 존중감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일 뿐아니라, 자신의 신체를 다루는 방식과 사회적 관계 행위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신체존중감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섭식행동과 대인관계, 성기능 장애 등의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화장과 성형수술, 몸매관리 장비와 서비스, 건강보조식품 등 다양한 신체관련 소비와도 관련이 있다. 그래서, 많은 연구들은 신체존중감을 신체관련 행동의 가장 가까운 원인으로 취급하고 있다(김완석, 조옥경, 2007).

동아시아 삼국의 여대생을 비교한 김완석과 김정식(2007)의 연구는 전체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경험역사에 따라 중국, 한국, 일본의 순으로 신체가치가 보수적일 것이며, 이에 따라 신체존중감도 중국, 한국, 일본의 순으로 높을 것이라는 예상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하지만, 연구결과는 예상과 달리 한국 여대생들이 중국과 일본 여대생들에 비해 신체의 자의적 조작에 가장 허용적이고, 자신의 신체를 타인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가장 높으며, 건강보다는 외모를 더 중시하며, 신체의 사회적 유용성을 더 크게 믿는 것을 나타내서 삼국의 여대생들 중에서 가장 덜 보수적인 신체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존중감은 한국여대생들이 외모존중감과 건강존중감의 격차를 가장 크게 드러내서, 외모존중감은 삼국 중에 가장 높은 반면에 건강존중감은 가장 낮았다. 본 연구에서는 남대생 표본을 포함하여, 다시 한 번 신체가치관

들과 신체존중감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1. 동아시아 삼국의 대학생들의 신체가치관과 신체존중감에 차이가 있는가.

신체이미지의 성차

최근 한국에서 남성들의 화장은 전통적인 단순한 피부관리 수준에서 벗어나 여성과 비슷하게 외모관리의 중요한 소비행동으로 등장하였고, 미용성형수술도 더 이상 여성의 전유물이 아닐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신체이미지에 대한 관심은 주로 여성들의 부정적 신체관련 행동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고, 이런 문제들이 주로 남성보다는 여성의 성상품화나 외모지향성을 부추기는 대중매체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관점을 감안하면, 신체이미지에 성차가 존재할 가능성은 매우 크며, 실제로 많은 연구들은 다양한 신체이미지 관련 변수들의 성차를 보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일반적으로 신체존중감이나 신체만족도가 낮으며(Mintz, & Betz, 1986; Mendelson et al., 2001; 김완석, 2007), 신체존중감의 하위요인들에 성차가 있고(Cash, & Brown, 1989; Franzoi, & Shields, 1984), 신체만족이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차이가 있다(Furnham, Badmin, & Sneade, 2002; Henriques, & Calhoun, 1999). 또한, 객체화 신체의식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높아서, 자기 신체에 대한 감시성과 수치심이 모두 높다(김완석, 유연재, 박은아, 2007)

신체가치관의 성차에 관해서는 별로 연구가 없지만, 한국표본 연구에 따르면, 1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한국여성은 같은 연령대의 남성

더 허용적이며, 건강에 비해 외모에 더 많은 가치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김완석, 차주화, 2006; 김완석, 유연재, 2007). 또한 논문에는 따로 보고하지 않았지만, 한국 여대생은 남대생에 비해 외모의 도구적 가치를 더 크게 지각하고 있다(김완석, 권지현, 유연재, 2010).

또한, 여성과 남성은 신체의 의미지각에도 차이가 있어서, 남성은 신체를 통합적으로 개념화하는 반면에 여성은 차별적으로 개념화하며(Halliwell & Dittmar, 2003), 젊은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자신의 신체를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반면에 젊은 여성들은 신체를 부위별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Franzoi, Kessenich & Sugrue, 1989). 이와 비슷하게, 한국여성은 남성에 비해 신체의 외모와 기능을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김완석, 2007).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2. 신체가치관과 신체이미지 관련 변수들에는 어떤 성차가 있는가.

객체화 신체이식의 매개역할

한편, 앞서 논의한 것처럼 자본주의와 상업주의의 영향은 신체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많은 학자들은 자본주의와 상업주의적 가치의 대두가 자신의 신체를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지각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치를 포착하는 신체가치관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즉, 신체에 대한 자의적인 조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관념(신체조작성)이나 신체의 건강보다는

외모를 중시하는 경향(신체편향성), 사회적 관계나 성취와 관련해서 신체의 특성을 도구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신체도구성), 신체를 타인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경향(신체평가소재)이 클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할 수 있다.

김완석과 김정식(2007)은 동아시아 삼국의 여대생들을 비교한 연구에서, 개인수준의 분석에서 신체조작성은 외모존중감과, 신체편향성과 신체평가소재는 체중존중감과 유의한 부적의 상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외모도구성은 외모존중감과 작지만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또한 국가수준의 분석에서도 신체조작성은 한국표본의 외모존중감과 유의한 상관이 있고, 신체편향성은 한국과 일본 표본에서 체중존중감과, 평가소재는 일본표본에서 체중존중감과 각각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런 결과는 신체가치관들이 신체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을 일부 지지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상관계수의 크기는 상당히 낮았다. 예컨대, 신체조작성의 경우 가장 큰 상관은 한국여대생 표본에서 나타난 -.245에 불과했으며, 신체편향성과 신체평가소재의 경우는 체중존중감과 각각 -.240과 -.241의 상관계수를 보였고, 신체평가소재와 신체도구성은 일본표본에서만 신체존중감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서 신체평가소재는 체중존중감과 -.340의 신체도구성은 외모존중감과 .172의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이런 연구결과는 신체가치관과 외모존중감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보다는 다른 매개변수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사실 신체가치관은 많은 국내외의 신체이미지 연구들이 다루고 있는 신체에 대한 지각과 감정, 평가를 포착하는 변수들인 신체만족도나

신체존중감(Franzoi, & Shields, 1984; Mendelson, Mendelson, & Andrews, 2000; Pliner, & Chaiken, 1990 등), 객체화 신체의식(Fredrickson & Roberts, 1997; 박은아, 2003), 신체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Heinberg, Thompson, & Stormer, 1995), 외모지향성(Cash, 2002) 등의 선행변인일 수 있다.

예컨대, 신체가치관 변인들과 성형수술이나 섭식, 운동, 몸치장 등 다양한 영역의 신체관련 행동들의 상관계수는 연구에 따라 유의하지 않거나 또는 유의하더라도 상당히 작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김완석, 김철민, 2002; 김완석, 차주화, 2006; 김완석, 유연재, 2007), 그리고 신체가치관을 사회문화적 태도 및 외모지향성의 선행인자로 설정하는 모형이 그 반대의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모형에 비해 우수하다는 연구결과(김완석, 유연재, 권지현, 2009)들은 이런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또한 여러 연구들은 객체화 신체의식이 신체만족도나 신체존중감의 선행요인임을 보여 주었고(예를 들면, Forbes, Jobe, & Revak, 2006; McKinley, 1998; Noll & Fredrickson, 1998; Tiggemann, & Slater, 2001 등), 최근 김완석과 조옥경(2009)은 신체가치관이 객체화신체의식의 매개역할을 통해 외모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을 여대생과 여성요가인 표본에서 검증하는 연구를 통해, 두 집단 모두에서 신체조작성은 수치심과는 관련이 없으며 감시성을 통해 외모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신체 편향성과 신체도구성은 수치심과 감시성 모두에 영향을 미치며, 이들의 매개역할을 통해 외모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며, 감시성은 외모존중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수치심의 매개과정을 통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연구결과는 한국여대생 표본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것이 성별이나 국가에 관계없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연구가 없어서 이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연구문제 3. 객체화 신체의식은 신체가치관이 신체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신체가치관의 영향을 객체화된 신체의식이 매개하는 모형은 선행연구(김완석, 조옥경, 2009)를 토대로 할 때, 다음과 같은 6가지 모형이 가능하다. 이 모형들에서 신체존중감의 지표로 외모존중감만을 사용하였다. 이는 건강존중감에서 집단에 따른 차이가 없었기 때문인데,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체기능존중감은 국가 간 차이나 성별차이 또는 각 집단별 차이가 없었다. 모형 1은 김완석과 조옥경(2009)의 연구모형처럼 신체가치의 영향은 모두 수치심과 감시성이라는 객체화신체의식의 매개를 통해 외모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가정하는 완전매개 모형이며, 모형 2는 신체편향성과 외모도구성이 외모존중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모형 1의 부분매개 모형이다. 모형 3은 김완석과 조옥경(2009)의 경쟁모형처럼 감시성이 수치심에만 영향을 주는 모형에 신체편향성과 평가소재가 외모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완전매개 모형을 가정할 수 있다. 모형 4는 모형 3의 부분매개 모형이다. 모형 5와 모형 6은 감시성이 외모존중감에 영향을 주지만 수치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모형이 가능한데 이를 다시 완전매개 모형과 부분매개 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그림 6은 각 모형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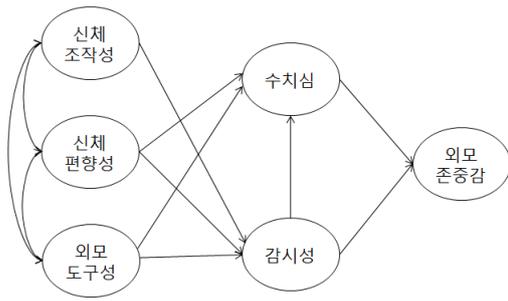


그림 1. 모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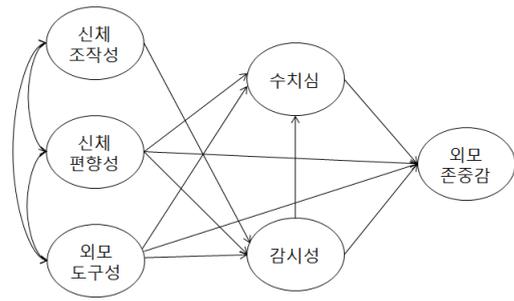


그림 2. 모형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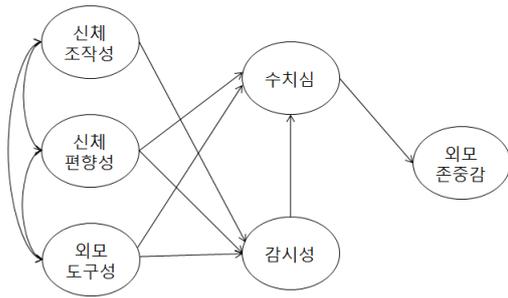


그림 3. 모형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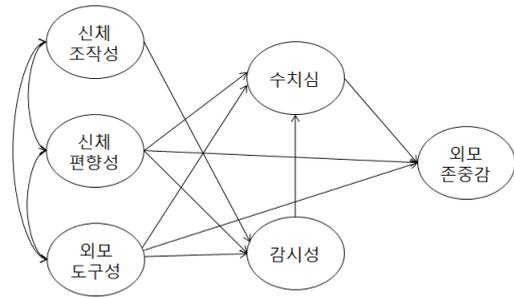


그림 4. 모형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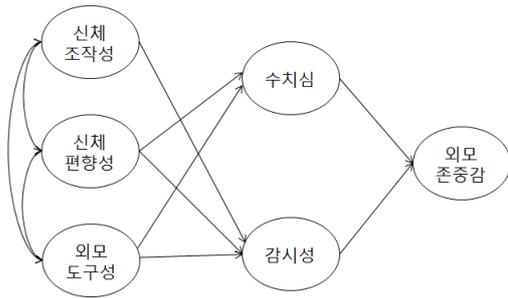


그림 5. 모형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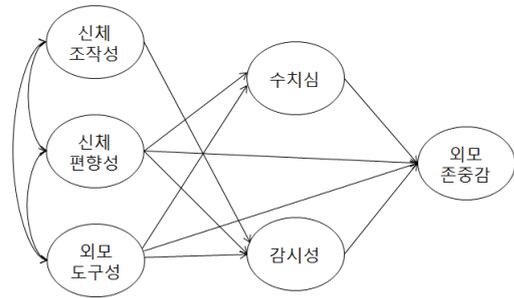


그림 6. 모형 6

연구방법

조사대상

한국(n=347), 중국(n=341), 일본(n=271)의 대학생 총 959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한국자

료는 수도권 A, M 대학과 충남의 D, S 대학에서 수집하였고, 중국자료는 상해지역의 B, D, C, K 대학 등 4개 대학에서, 일본자료는 지방 소도시의 H, Y 대학에서 수집하였다. 각 표본의 평균연령은 한국이 22.2세(SD=3.3), 중국이 20.5세(SD=2.8), 일본이 19.6세(SD=1.5)

표 1. 표본 구성

		한국	중국	일본	계
표본수	남자	167(48.1%)	179(52.5%)	147(54.2%)	493(51.4%)
	여자	180(51.9%)	162(47.5%)	124(45.8%)	466(48.6%)
	계	347(100.0%)	341(100.0%)	271(100.0%)	959(100.0%)
나이	남자	23.00(2.98)	20.86(2.69)	19.81(1.58)	21.27(2.84)
	여자	21.54(3.51)	20.06(2.84)	19.44(1.32)	20.47(2.97)
	계	22.24(3.35)	20.48(2.79)	19.64(1.48)	20.88(2.93)

였다. 표 1은 이를 정리한 것이다.

측정도구

신체가치척도-조작성(BVI-O)

이 척도는 김완석과 유연재(2007)가 개발한 것으로서, 신체의 자연적 변화에 반하는 인위적 조작이나 변형의 바람직성에 대한 신념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타고난 신체의 특성을 ~ 1)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은 좋지 않다, 2) 인위적으로 바꾸어도 괜찮다”, “사람의 외모는 ~ 1) 타고나는 것이어서 일부러 고치는 것은 좋지 않다, 2) 할 수 있다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고치는 것이 좋다” 와 같은 12개의 양분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신뢰도는 .89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조작성의 신뢰도는 한국이 .854, 중국은 .809, 일본은 .863로 나타났다.

신체가치척도-편향성(BVI-I)

이 척도는 김완석과 유연재(2007)가 개발한 것으로서, 신체의 기능(건강)에 비해 신체의 외형(외모)을 얼마나 더 가치있는 것으로 믿는가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멋진 몸매를 갖는 것 - 건강한/튼튼한 신체를 갖는

것”, “건강을 위해 투자하는 것 - 외모를 위해 투자하는 것”과 같은 9개의 4점짜리 의미 미분형 문항으로 구성되며, 척도의 신뢰도는 .88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신체편향성의 신뢰도는 한국이 .855, 중국은 .818, 일본은 .834였다.

신체가치척도-평가소재(BVI-LOE)

이 척도는 김완석과 차주화(2006)가 개발한 것으로서, 자신의 신체적 특성에 대한 평가와 감정이 얼마나 타인의 관점을 토대로 이루어지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며, “내가 외모를 꾸미는 것은 나 자신보다는 남들에게 예쁘게/멋있게 보이기 위해서이다”, “내가 건강을 위해 운동/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나 자신이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와 같은 8개의 4점짜리 리커트형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여성표본에서 .73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는 한국이 .747, 중국은 .637, 일본은 .697 이었다.

신체가치척도-외모 도구성(BVI-SI-A)

이 척도는 김완석, 권지현과 유연재(2010)가 개발한 것으로서, 이성 관계, 대인 관계, 사회적 성취의 세 하위 차원에서 신체의 외모가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신념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외모가 좋으면 마음에 드는 이성과 쉽게 사귄 수 있다”, “대인관계에서 건강한 신체는 큰 장점이다” 와 같은 19개의 4점짜리 리커트형 문항으로 구성되며,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하위차원 및 성별에 따라 최소 .80에서 최대 .86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차원을 제외한 이성관계와 사회적 성취차원만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 외모도구성-이성관계의 신뢰도는 한국이 .869, 중국 .897, 일본 .922였으며, 외모도구성-사회적 성취의 신뢰도는 한국이 .911, 중국 .881, 일본 .927로 나타났다.

신체존중감 척도

김완석(2007)의 전반적 신체존중감척도(KOBE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3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된 18문항짜리 4점 척도이다. 하위척도는 외모존중감(6문항), 체중존중감(3문항), 건강존중감(9문항)이다. 여대생 표본에서 하위척도의 신뢰도는 각각 .91, .85, .86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체중존중감의 세 문항을 외모존중감에 통합해서 하나의 하위요인으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외모존중감의 경우 한국은 .843, 중국은 .772, 일본은 .817이었으며, 건강존중감의 신뢰도는 한국은 .905, 중국은 .853, 일본은 .798 이었다.

객체화 신체의식 척도

김완석, 유연재와 박은아(2007)가 개발한 한국판 객체화 신체의식 척도(K-OBC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McKinley와 Hyde(1996)의 객체화 신체의식(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척도의 한국판으로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감시정도, 신체에 대한 수치심, 신체통제감의 세 하

위요인을 측정하는 6점짜리 리커트형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척도들의 내적 합치도는 신체감시성이 .83, 신체수치심이 .78, 신체통제감이 .73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통제감을 제외한 신체감시성과 신체수치심 하위요인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감시성의 신뢰도는 한국 .830, 중국 .773, 일본 .818로 나타났으며, 수치심의 신뢰도는 한국 .768, 중국 .812, 일본 .679로 나타났다.

외국어판 척도개발

국가 간 비교연구를 위하여 척도별로 한국어와 중국어, 일본어판을 각각 제작하였다. 네 종류의 가치척도와 신체존중감 척도는 김완석과 김정식(2007)이 개발한 중국어와 일본어판을 토대로 각 언어의 이중언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하였다. 객체화신체의식 척도는 한국어판을 기본으로 해서 일본어와 중국어의 이중언어자로 하여금 1차 번역토록 하여 일본어판과 중국어판을 제작하였다. 이를 다시, 제 삼의 이중언어자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고, 이 검토내용을 토대로 1차 번역자가 번역을 수정하도록 하는 과정을 거쳤다.

동아시아 삼국의 여대생을 비교한 김완석과 김정식(2007)의 연구에서 각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가 삼국 표본 간에 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다. 또한 각 척도의 요인구조에 성별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김완석, 2007; 김완석 등, 2010)가 있다. 따라서 척도의 동등성을 확인하기 위해 각 척도를 국가별 성별에 따른 6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따로 분석하였다. 각 척도의 심리측정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으며, 표 2에 각 척도의 국가별 성별 표본에 따른 내적합치도를 정리하였다.

표 2. 각 척도들의 각국 표본별 내적합치도 계수

척도명	문항수	한국		중국		일본	
		남	여	남	여	남	여
신체 조작성(BVI-O)	12	.85	.86	.80	.82	.84	.88
신체 편향성(BVI-I)	9	.83	.83	.83	.80	.79	.88
신체 평가소재(BVI-LOE)	6	.71	.78	.62	.67	.63	.77
신체 외모도구성(BVI-SI-A)	18	.93	.93	.92	.94	.92	.94
- 이성관계	6	.87	.87	.88	.91	.92	.93
- 사회적 성취	6	.92	.91	.88	.88	.91	.95
신체존중감(BES)	18	.90	.85	.87	.85	.81	.82
- 외모	9	.84	.84	.75	.80	.74	.86
- 건강	9	.91	.90	.83	.88	.79	.82
객체화 신체의식(K-OBCS)	12	.78	.82	.76	.80	.68	.71
- 감시성	6	.80	.84	.81	.72	.81	.77
- 수치심	7	.76	.78	.81	.81	.66	.70

신체가치척도-조작성(BVI-O)

각 국 표본별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스크리 방식으로 판단한 결과, 한국표본에서는 1개의 요인이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국과 일본표본에서는 2개의 요인으로 보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두 요인들 간의 상관계수가 남녀 각각 중국표본에서는 .58과 .64, 일본표본에서는 .60과 .62로 나타나 한 개의 요인으로 간주해도 좋을 것으로 보았다. 12개 문항의 총점을 구하고 이를 0-100점의 척도로 환산하여 신체조작성의 점수로 삼았다.

이 요인1과 2에 모두 .30이상의 부하량을 갖거나(한국여자, 중국여자, 일본남자, 일본여자 표본) 아니면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이 서로 다른 요인으로 구분된 것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한국남자, 중국남자 표본), 모든 표본에서 요인1과 요인2의 상관계수가 .6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서 하나의 요인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9개 문항의 총점을 구하고 이를 0-100점의 척도로 환산하여 신체편향성의 점수로 삼았다. 값이 클수록 건강보다는 외모를 더욱 중요한 것으로 믿는 것을 의미한다.

신체가치척도-편향성(BVI-I)

공통요인분석 결과, 모든 표본에서 고유값이 1 이상인 요인은 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베리막스 회전한 결과는 많은 문항들

신체가치척도-평가소재(BVI-LOE)

공통요인분석 결과, 모든 표본에서 고유값이 1 이상인 요인은 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기서도 긍정문과 부정문이 따로 요

인으로 분리되는 현상이 있다. 특히 1, 3번 문항은 대부분의 표본에서 제2요인만 .30이상의 부하량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 3번 문항을 제외하고 다시 분석한 결과, 모든 표본에서 단일요인 구조로 나타났고, 다만 중국 남자 표본에서만 2요인구조가 나타났지만, 제2요인으로 구분된 모든 문항들이 대부분 제1요인에도 .5이상의 부하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1요인 구조로 보아도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1, 3번 문항을 제외한 6개 문항의 총점을 구하고 이를 0-100점의 척도로 환산하여 평가소재의 점수로 삼았다. 값이 클수록 평가소재가 자신이 아니라 타인의 시각을 기준으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신체가치척도-외모도구성(BVI-SI-A)

외모도구성은 이성관계, 사회적성취, 대인관계의 세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요인수를 3개로 지정하고 요인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번 문항이 여러 표본에서 다른 요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번 문항을 제외하고 다시 분석한 결과, 중국남자 표본을 제외한 모든 표본에서 문항들이 해당요인에 가장 높은 부하량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남자 표본에서는 1개의 문항이 해당요인이 아닌 다른 요인에 부하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문항은 해당 요인에도 .5가 넘는 요인부하량을 보이고 있어서 무시해도 좋다고 보았다. 이성관계, 사회적 성취, 대인관계 모두 각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점을 구하고 이를 0-100점의 척도로 환산하여 각 하위요인의 점수로 삼았다.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가 각 요인에서 유용성이 높다고 지각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관계 차원을 제외한 이성관계와 사회적 성취만을 분석

에 포함시켰다.

신체존중감 척도

신체존중감 척도는 표본에 따라 3요인(건강존중감, 외모존중감, 체중존중감) 또는 2요인(건강존중감, 체중존중감 문항을 포함하는 외모존중감)으로 구성해서 사용한다. 이는 표본에 따라 요인구조가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판 신체존중감 척도를 개발한 김완석(2007)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명확하게 3요인 구조가 나타나지만, 남성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남자와 한국여자 표본은 3요인 구조가 명확하게 나타나지만, 중국과 일본표본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표본간의 비교를 위해 요인구조를 복잡하게 상정하기 보다는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더 나으리라는 판단과, 스크리 방식으로 요인수를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요인수를 2개로 지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국남자와 일본남자 표본을 제외한 모든 표본에서 KOBES의 2요인 구조와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중국남자와 일본남자 표본의 경우, 건강존중감과 외모존중감에 해당하는 문항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긍정문으로 작성된 문항들과 부정문으로 작성된 문항들이 구분되어 각기 하나의 요인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중국남자와 일본남자 표본의 경우 신체의 건강에 대한 존중감과 외모에 대한 존중감이 개념적으로 잘 분리되지 않는 미분화 상태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후속 비교를 위해 건강존중감에 해당하는 9문항과 외모존중감과 체중존중감에 해당하는 9문항을 각기 합산하여 그 총점을 구하고 이를 0-100점의 척도로 환산하여 각각 건강존중감과 외모존중감의 점수로 삼았다. 값이 클수

록 존중감이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객체화 신체의식 척도

객체화 신체의식 척도(OBCS)는 감시성과 수치심, 통제신념의 하위요인을 갖는 척도이다. 한국판 객체화 신체의식 척도(K-OBCS)도 마찬가지로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여러 연구결과들은 통제신념을 객체화 신체의식 척도의 요인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개념적으로나 실제연구 결과의 측면에서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통제신념은 내면화를 반영하기 보다는 효능감에 가까우며(김완석, 유연재, 박은아, 2007), 최근 Forbes, Jobe와 Revak(2006)은 통제신념은 SATAQ-3(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척도)의 하위차원 어느 것과도 유의한 상관이 없음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실제 연구에서는 통제신념을 빼고 사용하기도 한다(예를 들면, Noll, & Fredrickson, 1998; Tiggemann, & Slater, 2001).

본 연구에서도 요인수를 3개로 지정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표본에서는 대체로 각 문항들이 해당요인에 가장 높은 부하량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국이나 일본의 표본에서는 문항의 긍정 부정에 따라 일부 문항들이 다른 요인들에 속하는 거나 아니면, 일부 문항들이 해당 요인이 아닌 다른 요인들에 더 높은 부하량을 갖는 등 요인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통제신념에 해당하는 문항을 제외하고 감시성과 수치심을 측정하는 문항들만을 대상으로 요인수를 2개로 지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모든 여성표본과 한국남성 표본에서는 각 문항들이 해당요인에 .33 이상의 요인부하량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국남자와 일본남자 표본에서는 요인구조가 긍정문과 부정문에 의해 결정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표본간의 비교를 위해 감시성요인에 더 높게 부하된 수치심 문항인 문항 13과 15번, 반대로 수치심요인에 더 높게 부하된 감시성 문항인 문항 5와 6번 문항을 제외하였다. 그 결과, 모든 표본에서 모든 문항이 해당요인에 .50 이상의 요인부하량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시성의 6문항과 수치심의 6문항을 각각 합산하여 그 총점을 구하고 이를 0-100점의 척도로 환산하여 각기 감시성과 수치심의 점수로 삼았다. 값이 클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한 감시성과 수치심이 높음을 의미한다.

결 과

삼국 대학생의 신체가치관과 신체이미지

연구문제 1. 동아시아 삼국의 대학생들의 신체가치관과 신체존중감에 차이가 있는가.

동아시아 삼국 대학생들의 신체가치관과 신체존중감의 차이가 있는가 하는 연구문제 1을 검증하기 위해 국가별 1원 변량분석과 국가와 성별 조합에 따른 6개 집단별(한국 남대생, 한국 여대생, 중국 남대생, 중국 여대생, 일본 남대생, 일본 여대생) 1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은 측정변수들의 국가별, 성별 및 6개 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정리한 것이다.

신체가치관

신체조작성의 평균값은 한국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일본, 중국의 순이었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6.048, p<.01$). 사후검증으로 scheffe 검증을 실시한 결과 한국이 중국에 비

표 3. 국가별 성별에 따른 측정변수들의 평균(표준편차)

척도명	하위척도	성별	전체		한국		중국		일본	
			n	mean(sd)	n	mean(sd)	n	mean(sd)	n	mean(sd)
신체 가치관	신체 조작성	남자	491	52.48(28.96)	167	54.94(29.77)	177	50.47(27.69)	147	52.10(29.50)
		여자	464	53.92(29.94)	180	59.63(29.01)	162	49.02(28.42)	122	51.98(32.02)
		전체			347	57.37(29.43)	339	49.78(28.01)	269	52.04(30.61)
	신체 편향성	남자	481	27.77(18.87)	165	27.74(18.57)	175	24.63(20.01)	141	31.68(17.06)
		여자	444	35.88(20.30)	174	43.95(19.91)	157	28.24(17.53)	113	34.05(20.08)
		전체			339	36.06(20.88)	342	26.34(18.93)	254	32.73(18.46)
	신체 평가소재	남자	492	49.79(16.05)	167	53.29(15.76)	179	46.87(15.28)	146	49.35(16.64)
		여자	462	49.68(16.82)	180	52.78(16.95)	162	44.38(13.93)	120	52.18(18.49)
		전체			347	53.02(16.37)	341	45.68(14.68)	266	50.62(17.52)
	도구성 - 이성	남자	491	74.97(17.24)	167	81.44(13.22)	179	71.14(16.35)	145	72.27(20.12)
		여자	460	76.59(16.46)	180	80.83(13.28)	162	73.84(16.1)	118	73.87(19.78)
		전체			347	81.12(13.24)	341	72.42(16.26)	263	72.99(19.95)
도구성 - 사회	남자	491	57.93(18.74)	167	63.72(18.07)	179	59.75(16.61)	145	49.01(18.82)	
	여자	460	57.34(18.99)	180	63.15(16.95)	162	56.06(17.7)	118	50.23(20.95)	
	전체			347	63.42(17.48)	341	58.00(17.21)	263	49.56(19.77)	
신체 존중감	외모 존중감	남자	492	55.07(16.84)	167	57.24(16.09)	179	61.64(14.5)	146	44.55(15.34)
		여자	462	48.15(18.03)	180	50.35(16.15)	162	56.52(13.62)	120	33.55(17.27)
		전체			347	53.67(16.46)	341	59.21(14.30)	266	39.59(17.11)
	체기능 존중감	남자	492	62.88(16.91)	167	65.58(19.12)	179	62.26(15.1)	146	60.55(16.00)
여자		462	62.43(16.52)	180	62.82(17.72)	162	62.62(15.36)	120	61.60(16.26)	
	전체			347	64.15(18.43)	341	62.43(15.20)	266	61.03(16.10)	
객체화 신체 의식	감시성	남자	492	50.33(18.78)	167	56.05(16.95)	179	43.67(18.63)	146	51.96(18.56)
		여자	460	58.22(18.60)	179	63.52(17.23)	162	47.55(15.95)	119	64.79(17.56)
		전체			346	59.91(17.48)	341	45.51(17.49)	265	57.72(19.18)
	수치심	남자	492	39.38(18.50)	167	37.60(17.55)	179	40.39(20.22)	146	40.18(17.29)
		여자	460	41.71(20.35)	179	44.69(19.61)	162	31.65(18.97)	119	50.92(17.39)
	전체			346	41.27(18.95)	341	36.24(20.10)	265	45.00(18.12)	

주. 굵은 밑줄은 6개 집단 중 평균이 가장 높은 집단과 가장 낮은 집단을 나타냄.

해 유의하게 높았다($p < .01$). 국가와 성별에 따른 6개 집단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F=2.904, p < .05$), scheffe 검증결과 한국여대생이 가장 높았고 중국여대생이 가장 낮았다 ($p < .05$).

신체편향성은 국가간 차이가 유의했는데($F=21.291, p < .001$) 사후검증 결과 한국과 일본이 중국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6개 집단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22.346, p < .001$), 사후검증 결과, 한국 여대생이 다른 모든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신체평가소재에서도 국가간에 차이가 유의했는데($F=18.392, p < .001$), 사후검증결과 한국과 일본이 중국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6개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8.193, p < .001$), 사후검증 결과 한국의 남녀 대학생은 중국 남녀 대학생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 중국여대생은 일본여대생에 비해서도 유의하게 낮았다.

신체도구성은 이성 관계와 사회적 성취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성 관계도구성에서 국가간 차이가 유의했는데($F=29.401, p < .001$), 사후검증 결과 한국이 중국과 일본에 비해 높았다. 6개 집단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F=12.372, p < .001$), 사후검증 결과, 한국의 남녀 대학생 집단은 일본 여대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남녀 대학생과 일본 남대생에 비해서는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성취 도구성 또한 국가간 차이가 유의했고($F=44.261, p < .001$), 사후검증 결과 한국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중국, 일본의 순이었다. 6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18.513, p < .001$), scheffe 분석결과, 한국 남대생은 중국 여대생, 일본 남대생과 일본 여대생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

여대생은 중국 여대생과 일본 남, 여대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국 남대생은 일본 남, 여 대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중국여대생은 일본 남대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신체존중감과 객체화 신체의식

신체존중감 중 외모존중감은 국가간 차이가 유의해서($F=117.626, p < .001$), 중국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한국과 일본의 순이었다. 6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61.839, p < .001$), 사후검증 결과 중국 남대생은 한국 여대생, 일본 남대생과 여대생에 비해 높았으며, 중국 여대생은 한국 여대생과 일본 남, 여 대학생보다 높은 외모존중감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 남대생은 한국 여대생과 일본 남녀 대학생보다 높았으며, 한국 여대생은 일본 남녀 대학생보다 높은 외모 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체기능존중감에서는 국가간의 차이가 없었으며, 성별 차이나 6개 집단 간의 차이도 유의하지 않았다.

객체화 신체의식의 하위요인인 감시성($F=62.409, p < .001$)과 수치심($F=16.082, p < .001$)은 모두 국가간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scheffe 검증결과 감시성은 한국과 일본이 중국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수치심은 일본과 한국이 중국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6개 집단에서도 감시성($F=37.371, p < .001$)과 수치심($F=17.347, p < .001$)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 감시성은 일본여대생과 한국 여대생이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한국남대생과 일본 남대생, 중국 여대생의 순이었고 중국남대생이 가장 낮았다. 수치심의 경우는 일본여대생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한국여대생, 일본남대생, 중국남대생, 한국남대생의 순이었고 중국여대생이

가장 낮았다.

신체가치관과 신체이미지의 성차

연구문제 2. 신체가치관과 신체이미지 관련 변수들에는 어떤 성차가 있는가.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을 위해서는 개인수준의 분석으로 삼국자료를 통합하여 성별로 1원변량분석을 하였고, 국가수준의 분석을 위해 각국 표본별로 성별에 따른 1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신체존중감의 하위요인들간의 상관계수를 분석하였다.

신체조작성은 개인수준의 분석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고, 국가 수준의 분석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도 유의한 것이 없었다. 신체편향성은 개인수준의 분석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해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건강보다는 외모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 = -6.299, p < .001$). 국가수준에서는 한국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신체편향성이 유의하게 높았으나($t = -7.742, p < .001$), 중국과 일본 표본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신체평가 소재와 신체도구성은 개인수준의 분석이나 국가수준의 분석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신체의 외모존중감은 개인수준의 분석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어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았다($t = 6.135, p < .001$). 국가수준의 분석에서도 한국($t = 3.979, p < .001$), 중국($t = 3.353, p < .001$), 일본($t = 5.495, p < .001$) 모두 여성이 남성에 비해 외모존중감이 낮았다. 하지만 체기능존중감은 개인수준의 분석이나 국가수준의 분석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객체화신체의식의 하위차원인 감시성은 개인수준의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았다($t = -6.510, p < .001$). 국가수준의 분석에서도 한국($t = -4.062, p < .001$), 중국($t = -2.057, p < .05$), 일본($t = -5.732, p < .001$) 모두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감시성이 높았다. 수치심은 개인수준의 분석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국가수준의 분석에서는 한국($t = -3.534, p < .001$),과 일본($t = -5.017, p < .001$)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수치심이 높았지만, 중국에서는 오히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수치심이 높았다($t = 4.106, p < .001$).

표 4는 표본별로 외모존중감과 체기능존중감의 상관계수를 정리한 것이다. 개인수준의 분석에서 외모존중감과 체기능존중감은 유의한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317, p < .001$). 성별수준의 분석에서도 남성($r = .483, p < .001$)과 여성($r = .165, p < .01$) 모두 유의했으나 두 상관계수의 크기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z = 55.123,$

표 4. 표본별 외모존중감과 체기능존중감의 상관계수

	전체	한국	중국	일본
남자	.483***	.471***	.697***	.351**
여자	.165**	.165*	.260**	.109
전체	.317***	.326***	.479***	.202

주. *** $p < .001$, ** $p < .01$, * $p < .05$

$p < .01$). 국가별 분석에서도 한국($z=2.92$, $p < .01$)과 중국($z=36.31$, $p < .01$) 일본($z=2.06$, $p < .05$) 모두 남대생이 여대생에 비해 외모존중감과 체기능존중감의 상관계수가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객체화 신체의식의 매개효과

연구문제 3. 객체화 신체의식은 신체가치관이 외모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객체화된 신체이식이 신체가치관이 외모존

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6개 모형에 대한 3개국 대학생들의 모형적합도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모형의 집단 간 차이검증은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이 확보된 다음 구조동일성을 검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형태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3국가에서 가장 좋은(best fit) 모형적합도를 가진 모형을 살펴보았다. 6개의 모형을 동시에 비교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완전 매개 모형인 모형 1, 모형 3, 모형 5을 비교하고, 그 다음 선정된 모형의 완전 매개와

표 5. 3개국 모형별 적합도

		χ^2	df	CFI	NFI	TLI	RMSEA	AIC	ECVI
한국	모형1	221.839	79	.936	.906	.903	.072	333.839	.965
	모형2	214.408	77	.939	.909	.904	.072	330.408	.955
	모형3	223.431	80	.936	.905	.904	.072	333.431	.964
	모형4	214.923	78	.939	.909	.906	.071	328.923	.951
	모형5	221.847	80	.937	.906	.905	.072	331.847	.959
	모형6	214.430	78	.939	.909	.906	.071	328.430	.949
중국	모형1	164.125	79	.944	.899	.914	.056	276.125	.812
	모형2	158.744	77	.946	.902	.915	.056	274.744	.808
	모형3	172.401	80	.939	.894	.908	.058	282.401	.831
	모형4	161.716	78	.944	.901	.915	.056	275.716	.811
	모형5	164.287	80	.944	.899	.916	.056	274.287	.807
	모형6	159.083	78	.946	.902	.917	.055	273.083	.803
일본	모형1	159.980	79	.942	.894	.912	.062	271.980	1.007
	모형2	159.121	77	.941	.895	.908	.063	275.121	1.019
	모형3	185.544	80	.924	.877	.886	.070	295.544	1.095
	모형4	174.749	78	.930	.884	.893	.068	288.749	1.069
	모형5	162.552	80	.941	.892	.911	.062	272.552	1.009
	모형6	162.024	78	.940	.893	.907	.063	276.024	1.022

부분 매개 여부를 비교하였다. 모형 1은 모형 3과 모형 5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χ^2 차이검증이 가능하나 모형 3과 모형 5는 포함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χ^2 차이검증이 불가능하여 간명적합지수를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한국에서 모형 1과 모형 3을 비교하였을 때 $\Delta\chi^2 = 1.592(p=.207)$ 으로 모형 3을 선택하였으며, 모형 1과 모형 5를 비교하였을 때 $\Delta\chi^2 = 0.008(p=.929)$ 으로 모형 5를 선택하였다. 모형 3과 모형 5는 서로 포함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χ^2 차이검증을 실시할 수 없어 간명적합지수인 AIC와 ECVI를 살펴본 결과 모형 5의 간명적합지수가 조금 더 작아 모형 5를 선택하였다. 중국에서 모형 1과 모형 3을 비교하였을 때 $\Delta\chi^2=8.276(p<.01)$ 로 모형 1을 선택하였으며, 모형 1과 모형 5를 비교하였을 때 $\Delta\chi^2$

$=0.162(p=.687)$ 으로 모형 5를 선택하였다. 모형 3에 비해 모형 1이 우수하고, 모형 5가 모형 1보다 더 나왔기 때문에 모형 5를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일본에서 모형 1과 모형 3을 비교하였을 때 $\Delta\chi^2 = 25.564(p<.001)$ 로 모형 1을 선택하였으며, 모형 1과 모형 5를 비교하였을 때 $\Delta\chi^2 = 2.572(p=.109)$ 으로 모형 5를 선택하였다. 모형 3에 비해 모형 1이 우수하고, 모형 5가 모형 1보다 더 나왔기 때문에 모형 5를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모형 5의 완전 매개 모형과 모형 6의 부분 매개 모형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부분 매개 모형($\Delta\chi^2 = 7.417 p<.05$)인 모형 6이 선택된 반면 중국($\Delta\chi^2 = 5.204 p=.074$)과 일본($\Delta\chi^2 = 0.528 p=.768$)은 완전 매개 모형인 모형 5가 선택되었다. 한국의 경우 모형 4와 모형 6 간에 차이가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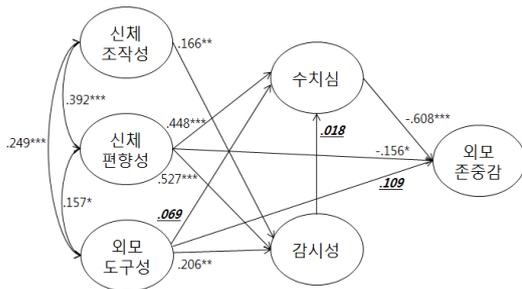


그림 7. 한국 모형(모형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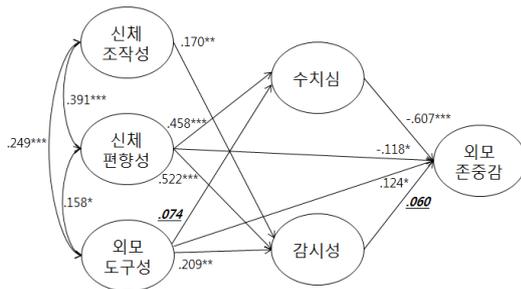


그림 8. 한국 모형(모형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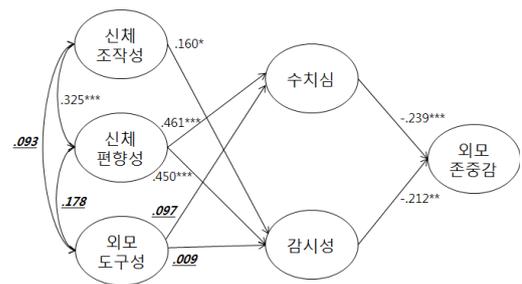


그림 9. 중국 모형 (모형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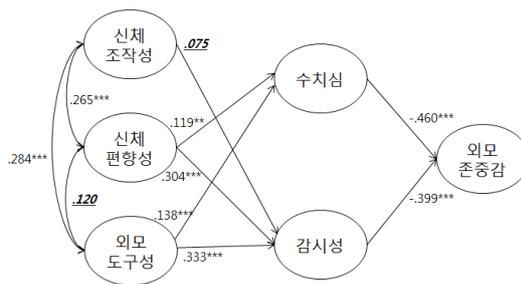


그림 10. 일본 모형 (모형 5)

주) 각 계수는 표준화된 계수이며, 이탤릭체는 유의미 하지 않은 계수, *** $p<.001$, ** $p<.01$, * $p<.05$

모형 4와 모형 6을 모두 선택하였다. 최종적으로 한국은 부분 매개 모형인 모형 4와 모형 6이 중국과 일본은 완전 매개 모형인 모형 5가 선택되어 중국과 일본은 형태동일성이 확보되었으나 한국은 형태동일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그림 7에서 그림 10까지 각 국가별 모형과 각 경로계수를 제시하였다.

형태 동일성이 확보된 중국과 일본 사이의 측정동일성을 검증한 결과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chi^2 = 50.362, p < .001$) 두 집단 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요인부하량의 동일화 제약을 풀어주어 부분 측정동일성을 확보하려 하였으나 지나치게 많은 동일화 제약이 풀려 부분 측정동일성을 확보하지 못하

였다. 중국과 일본 간 모형 차이 검증은 형태 동일성은 확보할 수 있었으나, 측정동일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실시하지 못하였다.

매개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Mplus를 이용하여 각 매개경로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한국의 경우 모형 4와 모형 6에서 모두 신체편향성→수치심→외모존중감의 경로만 제외하고 모두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신체편향성→수치심→외모존중감, 신체편향성→감시성→외모존중감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반면 외모도구성의 경로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신체편향성→수치심→존중감, 외

표 6. 국가별 매개경로 검증결과

경로	한국(모형 4)		한(모형 6)		중국(모형 5)		일본(모형 5)	
	계수	bootstrap (lower, upper)	계수	bootstrap (lower, upper)	계수	bootstrap (lower, upper)	계수	bootstrap (lower, upper)
조작성→감시성 →수치심→존중감	.000	(.000, .000)			-	-		
편향성→ 감시성 →수치심→존중감	-.003	(-.051, .042)			-	-		
도구성→감시성 →수치심→존중감	-.001	(-.017, .011)			-	-		
편향성→수치심 →존중감	-.165	(-.272, -.089)	-.169	(-.264, -.097)	-.096	(-.192, -.032)	-.050	(-.155, -.010)
도구성→수치심 →존중감	-.017	(-.091, .016)	-.018	(-.093, .012)	-.027	(-.075, .010)	-.022	(-.143, -.016)
조작성→감시성 →존중감	-	-	.000	(.000, .000)	-.001	(-.002, .000)	.000	(-.001, .001)
편향성→감시성 →존중감	-	-	-.019	(-.091, .045)	-.083	(-.210, -.002)	-.111	(-.205, -.046)
도구성→ 시성 →존중감	-	-	.005	(-.038, .007)	-.012	(-.024, .025)	-.047	(-.162, -.006)

모도구성→수치심→외모존중감, 신체편향성→
감시성→외모존중감, 외모도구성→감시성→외
모존중감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반면,
신체조작성의 경로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들은 신체가치(신
체편향성, 신체조작성, 외모도구성)들이 객체
화 신체의식을 통해 외모존중감에게 영향을
주지만 각 국가별로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준
다.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의 동북
아시아 3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3개국 젊은
이들의 신체에 대한 가치, 신체이미지 관련
변인들이 차이가 존재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
다. 또한 신체가치관이 외모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객체화된 신체의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신체가치관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어서, 신
체조작성과 편향성, 평가소재, 외모의 이성관
계 도구성 모두 한국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
로 일본, 중국의 순이었다. 여성표본과 남성표
본을 비교해보면, 여성표본에서는 네 가지 신
체가치관 모두에서 한국이 가장 높고 그 다음
으로 일본, 중국의 순이어서 여대생들의 신체
관련 가치관들이 중국, 한국, 일본의 순으로
보수적이라는 예상을 했으나 실제로는 중국,
일본, 한국의 순으로 나타났던 김완석과 김정
식(2007)의 연구결과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이
다. 하지만, 남대생들의 경우는 여대생들과 약
간 달랐다. 한국남대생은 신체조작성과 신체
평가소재에서는 일본남대생과 차이가 없고,
신체편향성은 일본남대생 보다 오히려 낮은

대신, 외모도구성은 이성관계와 사회적 성취
모두에서 한국남대생이 일본이나 중국남대생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한
국남대생들이 일본남대생에 비해 신체의 자의
적 조작성을 허용하는 정도나 자신의 신체를 타
인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정도는 비슷하지만,
건강에 비해 외모를 중시하는 정도는 낮으면
서도 신체의 외모가 이성관계에서 도구적 가
치를 더 많이 갖는다고 믿음을 뜻한다.

사회적 성취에 대한 외모의 도구성의 경우
에는 국가별로 한국이 가장 높았지만, 그 다
음으로 중국, 일본 순으로 높아서 중국대학생
들이 일본대학생들에 비해서 사회적 성취에
대한 외모의 도구적 가치를 더 크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흥미로운 것인
데, 왜냐하면, 이는 오랫동안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했기에 외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가장
낮을 것이라 볼 수 있는 중국이 급격한 자본
주의적 변화와 함께 신체외모에 대한 가치관
도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
이기 때문이다.

신체존중감의 하위요인인 체기능존중감에서
는 국가간 차이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지
만, 외모존중감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국가별
로는 중국대학생이 외모존중감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한국과 일본의 순이었다. 이는
여대생이나 남대생 모두에서 동일했다. 특이
한 것은 여대생 표본에서 한국여대생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중국과 일본의 순이었던 김
완석과 김정식(2007)의 연구와 달리 한국여대
생이 중국여대생보다 외모존중감이 더 낮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그 이유를 추
정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여대생들의 외모존중
감이 중국여대생에 비해 낮아졌다는 것은 주
목할 만한 결과이다. 한국청소년에서 외모는

행복의 중요한 구성요인이라는 점에서(전경숙, 정태연, 2009), 한국여대생의 낮은 외모존중감은 행복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객체화 신체 의식의 경우, 자신의 신체에 대한 감시성은 한국과 일본대학생이 중국대학생에 비해 높았다. 여성표본에서는 일본여대생과 한국여대생이 중국여대생에 비해 자신의 신체를 의식하고 관찰하는 경향이 더 높았고, 남성표본에서는 한국과 일본남대생이 중국남대생에 비해 더 높았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 수치심도 일본과 한국의 대학생이 중국대학생에 비해 높았으며 이는 여성표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결과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감시성과 수치심이 일본과 한국여대생이 중국여대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다는 결과를 보고한 김완석, 박은아와 Takemoto(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하지만 남성표본에서는 삼국간의 차이가 없었다.

성별차이의 경우, 신체가치관 중에서는 신체편향성만이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여대생이 남대생에 비해 건강보다는 외모를 더 중요하다고 믿는 정도가 심했다. 신체존중감에서는 여대생이 남대생에 비해 외모존중감이 낮았고, 이는 서구의 여성과 남성을 비교한 연구결과들(Mintz, & Betz, 1986; Mendelson et al., 2001)과 일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체기능 존중감에서는 성별차이가 없었다. 객체화 신체 의식은 삼국모두 여성표본이 남성표본에 비해 수치심이 더 높았고, 이는 유의한 성별차이로 드러났다. 하지만, 수치심의 경우는 성별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중국표본에서 나타난 독특한 현상에서 기인한다. 즉, 한국과 일본 표본에는 여대생이 남대생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심을 보여주었지만, 중국표본에서는 남대

생은 한국과 일본대학생과 비슷한 수준인데 반해 중국여대생은 오히려 중국남대생보다도 낮은 수치심을 보여주었다. 객체화 신체 의식의 성별차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성별차이에 관한 가설은 검증된 바 없지만, 객체화 신체 의식이라는 개념이 주로 자본주의적 상업광고와 가치관에 따른 여성의 상품화와 객체화를 주장하는 여성주의적 관점의 이론이라는 점에서 대체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객체화 신체 의식이 높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예상은 감시성의 경우 세 표본 모두에서, 그리고 수치심의 경우 한국과 일본표본에서는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국에서는 오히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수치심이 낮아서 그렇지 않았다.

국가와 성별을 조합한 각 표본별 분석결과는 삼국의 남녀 대학생들의 차이를 잘 드러내 보여준다. 신체조작성은 한국여대생이 가장 높았고 중국여대생이 가장 낮았다. 신체편향성은 한국여대생이 가장 높았고 이는 중국남녀와 한국남대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이었다. 신체평가소재는 한국남녀와 일본여대생이 중국남녀에 비해 높았다. 외모의 이성관계 도구성에서는 한국남녀가 중국남녀와 일본남대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 사회적 성취도 구성에서는 한국남여가 중국과 일본남여에 비해 더 높았다.

신체존중감 중 외모존중감은 중국남녀와 한국남대생이 한국여대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 일본남녀가 가장 낮았다. 체기능존중감에서는 표본별 차이가 없었다. 객체화신체 의식 중 감시성은 일본과 한국여대생 집단이 가장 높고, 중국남녀가 가장 낮았으며, 수치심은 일본과 한국여대생 집단이 가장 높고 중국여대

생이 가장 낮았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각 표본의 신체가치관과 신체이미지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한국여대생은 네 가지 신체가치 모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신체편향성은 다른 어떤 집단보다도 높았다. 이는 한국여대생이 가장 자본주의적인 신체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삼국의 다른 대학생 집단에 비해 신체의 건강보다는 외모에 훨씬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기울이는 것일 가능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남대생도 신체편향성을 제외한 다른 가치관에서는 한국여학생과 마찬가지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아서 한국대학생들이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더 높은 자본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한국여대생의 외모존중감은 일본보다는 나으나 중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자신의 신체에 대한 감시성이나 수치심이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며 중국보다 더 높아서 이것이 비교적 낮은 외모존중감과 함께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정적 경험을 상대적으로 더 많게 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자신의 외모를 향상시키려는 다양한 시도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일본여대생은 한국여대생에 비해서는 낮지만 신체편향성도 비교적 높고 또한 신체평가 소재도 상대적으로 외부로 향하는 경향이 있고, 무엇보다 외모존중감이 가장 낮다. 또한 감시성과 수치심 수준도 제일 높아서 대단히 부정적인 신체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는 한국여대생과 비슷한 신체가치관과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경향이 있다. 다만, 사회적 성취에 관한 외모의 도구성은 일본남대생과 함께 낮은 편인데, 이는 일본사회가 한

국이나 중국에 비해 직장생활이나 사회적 인간관계에서 외모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덜할 것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외모의 향상을 위한 투자나 관심은 한국여대생과 비슷하다고 해도 그 목적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예컨대, 한국에서 매우 흔하게 이루어지는 성형수술은 단순히 좋은 짝을 만나기 위한 생물학적 필요정보보다는 오히려 취업이나 직업생활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지만, 일본에서의 그것은 사회적 쓸모보다는 자신의 기호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중국의 남대생들은 대체로 보수적인 신체가치관을 지니고 있지만, 사회적 성취에 대한 외모의 도구적 가치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믿음을 보이고 있으며, 외모존중감이 높으면 서도 동시에 수치심 수준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어렵지만, 자본주의적 신체가치와 이미지의 영향으로 가장 큰 혼동을 겪고 있는 집단일 수 있다. 이에 반해 중국여대생은 중국남대생과 비슷하게 보수적인 신체가치관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모존중감도 높고, 감시성도 높지 않으며 특히 수치심도 가장 낮아서 가장 ‘건강한’ 신체가치관과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보인다.

한편, 신체존중감의 하위요인인 외모존중감과 체기능존중감의 상관계수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 개인수준의 분석이나 국가수준의 분석 모두에서 남대생이 여대생보다 높았고, 국가별로는 중국, 한국, 일본의 순이었다. 표본별로는 중국남대생이 가장 높았고, 한국남대생, 일본남대생, 중국여대생, 한국여대생, 일본여대생의 순이었다. 이런 결과는 신체의 의미각에 관해 성별차이가 있을 가능성과 이런 의미각이 자본주의 경험과 관련이 있을 가능

성을 보여준다. 즉, 남대생이 여대생에 비해 외모존중감과 체기능존중감의 상관계수가 높다는 결과는 일반적으로 남성은 신체를 통합적으로 개념화하는 반면, 여성은 차별적으로 개념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Halliwell과 Dittmar, 2003)의 타당성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신체를 상품화하는 경향을 조장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심화에 따라 개인의 외모와 건강이 독립적인 개념으로 분화되는 것일 수 있다(김완석, 김정식, 2007)는 주장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분석결과는 신체의미지각의 성별 차이에 관한 주장이나 사회적 변화에 따른 변화라는 주장을 직접 지지해주는 것은 아니다. 향후 연구의 주제이다.

신체가치관이 외모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객체화신체의식이 하는 역할에는 국가 간에 상당한 공통점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적으로 신체조작성은 감시성에만 영향을 미칠 뿐 외모존중감에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도구성은 한국과 일본 표본에서는 감시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중국 표본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하지만 신체편향성은 삼국표본 모두에서 수치심과 감시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런 과정을 통해 외모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특한 것은 수치심과 감시성이 중국과 일본표본에서는 외모존중감에 모두 영향을 미치지만, 한국표본에서는 감시성은 영향이 없고 수치심만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또한 외모도구성은 중국이나 일본표본과 달리 한국표본에서는 외모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결과는 한국대학생의 외모존중감에는 수치심과 외모도구성이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일본과 중국대학생의 외모존중감에는 외모도구성의 영향이 모두 수치심과 감시성의 매개역할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뜻한다. 전체적으로 높은 객체화신체 의식이 낮은 외모존중감을 초래한다는 설명은 중국과 일본표본에서는 검증되었지만, 한국표본에서는 수치심 외에 감시성의 영향대신에 외모도구성과 신체편향성이 직접적으로 외모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독특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런 결과는, 외모도구성 수준이 한국표본에서 가장 높다는 결과와 함께, 한국사회에서 외모가 이성관계 뿐아니라 직장생활과 같은 사회적 상황에서도 도구적 가치를 갖는다는 신념이 한국대학생의 외모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첫째, 일반적으로 동일한 역사문화적 배경을 가져 하나의 문화권으로 치부되어 온 동아시아 삼국의 대학생들 사이에 신체가치관과 신체이미지들은 유의한 차이가 있다. 전체적으로 한국대학생이 가장 덜 보수적인 신체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대학생이 가장 보수적인 신체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일본대학생들 특히 일본여대생은 외모존중감이 가장 낮으며 다음으로 한국, 중국의 순이다.

둘째, 삼국의 남녀 사이에는 신체가치관과 신체이미지들에 차이가 있어서, 남대생이 여대생에 비해 더 보수적인 가치관과 더 긍정적인 신체이미지(즉, 높은 외모존중감, 낮은 객체화신체의식)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체기능존중감에서는 국가나 성별에 차이가 없다.

셋째, 국가에 관계없이 남대생은 여대생에 비해 외모와 건강에 대한 존중감의 상관이 높다. 이는 여대생이 자기 신체의 외모와 건강

을 독립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더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신체가치관은 객체화신체의식을 통해 외모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과정이 국가에 따라 다르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는 신체가치관이 수치심과 감시성의 매개역할을 통해 외모존중감에 영향을 미치지만, 한국표본에서는 감시성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며, 신체편향성과 외모도구성 같은 신체가치관이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삼국 대학생들의 신체가치 및 신체이미지들의 차이를 주로 삼국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경험한 역사의 차이로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들이 이러한 설명의 타당성을 직접 검증해주는 것은 아니며, 특히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경험이 일본보다 짧은 한국의 대학생들이 대부분의 측정치에서 오히려 일본대학생에 비해 더 자본주의적인 것으로 나타난 결과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라는 거시적인 단일요인만으로 삼국 청년들의 신체가치와 이미지들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서, 문화역사적 차이를 토대로 한 국가간 비교보다는 동일문화권 내에서 지역간의 사회문화 경제적 차이가 다양한 사회적 현상에 대한 비교문화적 설명력이 더 높다는 주장이 있다. 본 연구에서 중국표본은 거대 상업도시인 상해의 대학들에서 모은 것이고, 한국표본은 서울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의 대학들에서 모은 것이며, 일본표본은 전형적인 지방소도시의 대학들에서 얻어진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상업문화의 영향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중국표본의 지역이 가장 자본주의적이며, 일본표본의 지역이 가장 보수적인 곳일 수 있다. 이러한 각국 표본의 지역적 특성이

본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 일 수 있다. 향후, 지역적 특성을 통제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국표본에서 신체편향성과 외모도구성이 외모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그동안 이 분야의 연구에서 널리 받아들여졌던 객체화신체의식 이론이 간과했던 요인으로서 신체가치관이라는 개념의 유용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동안, 이 분야에서는 상업주의 매스컴같은 사회환경요인으로 인해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를 객체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이것이 부정적인 신체이미지의 주 원인이라는 객체화신체의식 이론이 널리 받아들여졌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정적 신체이미지의 또 다른 원인으로 신체가치관의 직접적인 영향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신체이미지를 대중매체의 영향만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나 이를 토대로 한 서구의 연구들의 타당성에 한계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여성 뿐아니라 남성표본을 포함해서 신체가치관과 신체이미지의 성차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동아시아 삼국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서구표본과의 비교가 불가능했다. 향후 서구표본을 포함하는 연구를 통해 신체가치와 신체이미지의 차이를 더 잘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영신, 양난미 (2010). 남녀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섭식억제 간의 관계에서 신체비교와 신체불만족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4), 791-815.
- 김완석 (2007). 전반적 신체존중감 척도(KOBES):

- 개발 및 성차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2), 231-253.
- 김완석, 권지현, 유연재 (2010).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 외모도구성척도(BVI-SI-A)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3), 549-568.
- 김완석, 김정식 (2007). 동아시아 여대생들의 신체가치관과 신체존중감: 한국, 중국, 일본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4), 113-134.
- 김완석, 김철민 (2002). 몸의 심리학: 몸에 대한 생각과 소비행동. 한국소비자광고심리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20.
- 김완석, 박은아, Takemoto (2009). 객체화 신체 의식과 신체존중감, 자기해석의 관계: 한국, 중국, 일본여대생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1), 23-46.
- 김완석, 유연재 (2007). 신체가치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신체조작성척도와 신체편향성 척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6(1), 1-21.
- 김완석, 유연재, 권지현 (2009). 신체가치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지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10(3), 581-600.
- 김완석, 유연재, 박은아 (2007). 한국판 객체화 신체 의식 척도(K-OBCS):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6(2), 329-349.
- 김완석, 조옥경 (2009). 미용성형의도, 신체이미지와 신체가치관의 관계: 여성요가인과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10(4), 611-632.
- 박은아 (2003). 신체존중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문화적 연구: 한국과 미국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2(2), 35-56.
- 손은정 (2011). 완벽주의, 자기비난, 자기의식, 신체불만족 및 신경성 폭식증 증상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1), 165-183.
- 전경숙, 정태연 (2009). 한국청소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1), 133-153.
- Bourdieu, P. (1973). Cultural reproduction and social reproduction. In R. Brown(ed.), *Knowledge, Education and Social Change*. London: Tavistock.
- Brown, T. A., Cash, T. F., & Lewis, R. J. (1989). Body-image disturbances in adolescent female binge-purgers: A brief report of the results of a national survey in the U. S. A. *Journal of Child Psychology & Psychiatry*, 30, 605-613.
- Cash, T. F. (2002). Cognitive-behavioral perspectives on body image. In Cash, & T. Pruzinsky (Eds.) *Body Image: A Handbook of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38-46). New York: Guilford.
- Cash, T. F. (2004). Body image: Past, present, and future. *Body Image*, 1, 1-5.
- Celio, A. A., Zabinski, M. F., & Wilefey, D. E. (2002). African american body image. In T. F. Cash, & T. Pruzinsky (Eds.) *Body Image: A Handbook of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234-242). New York: Guilford.
- Forbes, G. B., Jobe, R. L., & Revak, J. A. (2006). Relationships between dissatisfaction with specific body characteristics and the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Questionnaire-3 and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 *Body Image*, 3, 295-300.
- Franzoi, S. L., & Kessenich, J. J., & Sugrue, P. A. (1989). Gender differences in the experience of

- body awareness: An experiential sampling study, *Sex Roles*, 42(9/10), 887-915.
- Fredrickson, B. L., Roberts, T-A. (1997). Objectification theory: Toward understanding women's lived experiences and mental health risk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 173-206.
- Garner, D. M. (2002). Body image and anorexia nervosa. In T. F. Cash, & T. Pruzinsky (Eds.) *Body Image: A Handbook of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295-303). New York: Guilford.
- Gluck, M. E., & Geliebter, A. (2002). Racial/ethnic differences in body image and eating behaviors. *Eating Behaviors*, 3, 143-151.
- Hall, C. C. (1995). Asian eyes: Body image and eating disorders of Asian and Asian American women. *Eating Disorders*, 3, 8-19.
- Halliwell, E., & Dittmar, H. (2003). A qualitative investigation of women's and men's body image concerns and their attitudes toward aging. *Sex Roles*, 49, 675-684.
- Harrison, K. (2000). The body electric: Thin-ideal media and eating disorders in adolescents. *Journal of Communication*, 50, 119-143.
- Heinberg L. J., Thompson, J. K., & Stormer, S. (199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7(1), 78-89.
- Jackson, L. A., & McGill, O. D. (1996). Body type preferences and body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attractive and unattractive bodies by African Americans and Anglo Americans. *Sex Roles*, 35, 295-307.
- Jaeger, B., Ruggiero, G. M., Edlund, B., Gomez-Perretta, C., Lang, F., Mohammadkhani, P., Sahleen-Veasey, C., Schomer, H., & Lamprecht, F. (2002). Body dissatisfaction and its interrelations with other risk factors for bulimia nervosa in 12 countries. *Psychotherapy and Psychosomatics*, 71, 54-61.
- Kleck, R. E., & Strenta, A. (1980). Perceptions of the impact of negatively valued physical characteristics on social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861-873.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cKinley, N. M. (1998). Gender differences in undergraduates' body esteem: The mediating effect of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and actual/ideal weight discrepancy. *Sex Roles*, 39, 113-123.
- McKinley, N. M., & Hyde, J. S. (1996). 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0, 181-215.
- Mendelson, M., Mendelson, B. K., & Andrews, J. (2000). Self-esteem, body esteem, and body-mass in late adolescence: Is a competence X importance model needed?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1(3), 249-266.
- Mendelson, M., Mendelson, B. K., & White, D. R. (2001). Body-Esteem Scale for adolescents and adul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76(1), 90-106.
- Mintz, L. B., & Betz, N. E. (1986). Sex differences in the nature, realism, and

- correlates of body image. *Sex Roles*, 15, 185-195.
- Mintz, L. B., & Kashubeck, S. (1999). Body image and disordered eating among Asian American and Caucasian American college student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3, 781-796.
- Mukai, T., Kambara, A., & Sasaki, Y. (1998). Body dissatisfaction, need for social approval, and eating disturbances among Japanese and American college women. *Sex Roles*, 39, 751-763.
- Nemeroff, C. J., Stein, R. I., Diehl, N. S., & Smilack, K. M. (1994). From the Cleavers to the Clintons: Role choices and body orientation as reflected in magazine article content.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6, 167-176.
- Nezlek, J. (1999). Body image and day-to-day social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67, 793-817.
- Noll, S. M., & Fredrickson, B. L. (1998). A mediational model linking self-objectification, body shame, and disordered eating. *Psychology and Women Quarterly*, 22, 623-636.
- Pliner, P., & Chaiken, S. (1990). Gender differences in concern with body weight and physical appearance over the life spa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6(2), 263-273.
- Shilling, C. (2000). 몸의 사회학(임인숙 역). 서울: 나남출판.(원본 출판년도는 1993).
- Stice, E. (2002). Body image and bulimia nervosa. In T. F. Cash, & T. Pruzinsky (Eds.) *Body Image: A Handbook of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304-311). New York: Guilford.
- Tiggemann, M., & Slater, A. (2001). A test of objectification theory in former dancers and non-dancer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5, 57-64.
- Wiederman, M. W. (2002). Body image and sexual functioning. In T. F. Cash, & T. Pruzinsky (Eds.) *Body Image: A Handbook of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287-294). New York: Guilford.
- 논문투고일 : 2012. 3. 28.
1차 심사일 : 2012. 4. 2.
게재확정일 : 2012. 5. 14.

Body Images of Korean College Students: Based on a Cross-National Study Focusing on Korean, Chinese, and Japanese College Students.

Wan-Suk Gim

Ajou University

Yeon-Jae Ryu

Kwangwoon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body images based on the survey data drawn from college students in three East Asian countries(Korea, Japan, and China). 347 Korean, 341 Chinese, and 271 Japanese college students responded to questions designed to measure body images such as body-related values (operability, inclination, locus of evaluation, and instrumentality of appearance), body esteem (appearance, and health), and objectified body-consciousness (surveillance and shame). The results showed that body images differ among countries. Regarding body-related values, Korean students have least conservative beliefs and followed by Japanese, and Chinese. Korean students showed the highest acceptance level for the voluntary body alteration(operability), highest inclination to body appearance over health. They also showed the strongest tendency of evaluating their body from the observer's point of view and the strongest belief about the social utility of body appearance compare to Japanese and Chinese students. Appearance- esteem of Korean was similar to Chinese but higher than Japanese. Surveillance and shame about body appearance of Korean students were similar to Japanese but higher than Chinese. Compare to male students, females showed stronger belief about the body appearance over health, lower appearance esteem, and higher surveillance and shame about body. Korean women showed the least conservative body-related values, and the levels of body appearance esteem and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were located in between Japanese and Chinese women. Japanese women showed especially low body appearance esteem and highest surveillance and shame. Chinese women showed the most conservative body-related value, the highest appearance-esteem, and the lowest surveillance and shame. It was revealed that the body-related values indirectly affect to appearance-esteem through the mediating role of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in Chinese and Japanese samples, but that the body-related values had direct effect on appearance-esteem as well in Korean sample.

Key words : *body image, body-related values, body-esteem, instrumentality of appearanc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cross-national study*